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향군인신문

인 터 넷 향 군
www.korva.or.kr

1962년 5월 16일 창간 | THE KOREAN VETERANS NEWSPAPER | 2021년 8월 1일 일요일 제841호

천안함 전사자 아들에 향군 장학금 지원

김진호 회장, 조의금 전달…"용기 잃지 말길"

김진호 회장

향군은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모씨가 7월21일 암투병 끝에 별세한 데 이어 고1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7월23일 김진호 회장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하고 정군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향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향군은 "아직 어린 정군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세상에 홀로 남는다는 충격과 좌절에 대해 아픔을 함께하면서 앞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김진호 회장 조의금은 정군의 계좌로 즉시 입금하고 장학금은 장례를 마치는 대로 위로와 함께 장학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분 1백만원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호 회장은 "정군이 하루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다양한 안보활동 펼치는 향군 위문

맨담 코리아 호리 히로토 대표, 화장품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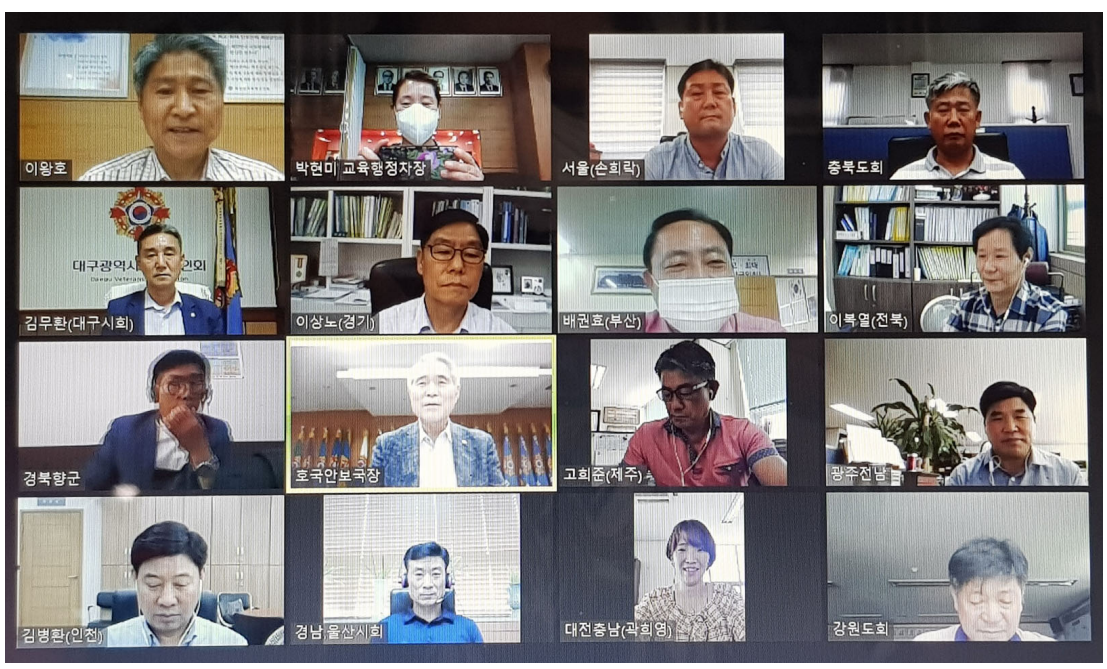
㈜맨담 코리아 대표 호리 히로토씨가 7월14일 향군 본부를 방문, 김진호 회장에게 화장품 2천 세트를 기증했다.

호리 히로토 맨담 코리아 대표는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향군인회 임직원들을 위문하는 차원에서 화장품을 기증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김진호 회장은 "호리 히로토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폭염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향군 전 임직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맨담 코리아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 화장품 전문 기업인 ㈜맨담(mandam)의 자회사로 본사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타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한국 총판 대리점이다.

'향군 TV' 활용, 비대면 안보교육 활성화

시 도 안보부장 화상 간담회… 10만 구독자 확보 캠페인



향군은 비대면으로 13개 시 도회 안보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군TV' 활용, 안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다.

향군은 7월21일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유튜브 방송 '향군 TV' 10만 구독자 확보 캠페인과 관련해 비대면으로 13개 시 도회 안보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안보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된 '향군 TV' 활용 안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향군 유튜브 방송의 핵심은 국가안보단체로서 향군회원과 국민에게 안보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자료는 주요 안보관련 사안을 이슈별로 종합 검토하여 여러 의사결정 단계를 거친 후 녹화해 업로드되는 '순수 안보교육 자료'다. 아울러 유튜브 방송법과 저작권을 준수하면서 제작한 안보교육 자료이며 사실 위주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춰 교육의 적합성과 효용성은 이미 전문가와 회원들의 인정을 받으며 호응을 얻은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이다.

그간 향군의 안보교육 활동은 대면 강연이나 안보전적지 답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영향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이에 향군은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유튜브 방송 '향군 TV-안보정론'을 개설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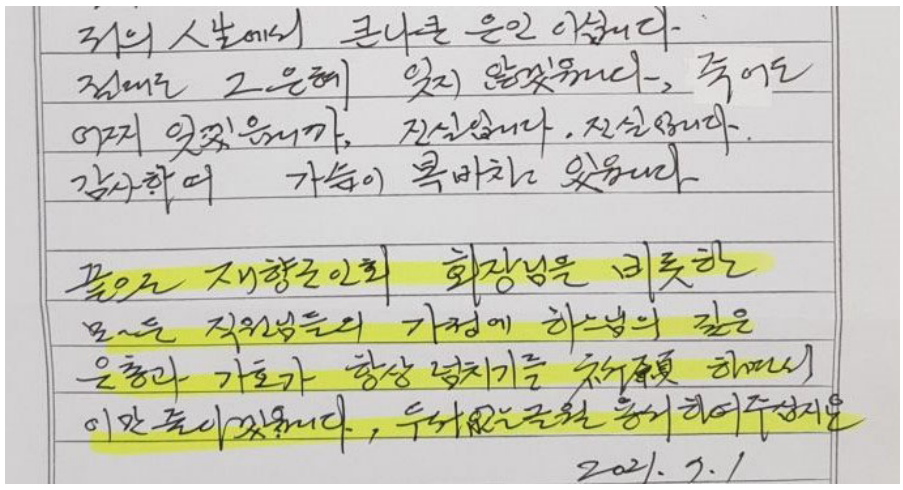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유튜브 '향군 TV'를 통해 교육받은 소수정예의 회원이 다수의 국민에게 안보교육 내용을 전파·확산하자는 의견과 함께 올해 말까지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유튜브방송 「향군TV」 채널운영
※접속방법:https://youtube.com/향군tv

향군TV 바로가기▶

80대 베트남 참전용사, 향군에 감사편지

제대군인 임대주택 수혜 "희망 준 데 감사"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향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의 급격한 전세 인상 요구로 막막해진 80대 참전용사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월남전 참전용사 A(81)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 보증금을 현재 1억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3000만원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한숨이 깊어지던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향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향군과 LH는 이미 29명의 입주 대상자 선정을 마쳐 발표까지 한 상황이라 도울 방법이 요원했지만 내부 회의와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급하게 A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A씨는 1968년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폭파 사고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로 확인됐다. 그는 1년간의 파병을 마치고 귀국해 1987년 해병 중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수십 년간 현역에서 복무했다.

A씨는 임대주택 선정 소식을 접하고 이달 초 향군에 보내 온 4쪽의 감사 편지를 통해 "중령으로 군대를 나와 집 한 채 없이 산다는 자괴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며 "제대군인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딱한 사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대폭 낮춰 계약을 연장해줬고 A씨는 번거로운 이사를 하지 않게 됐다.

향군과 LH는 "국가유공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제대군인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이름 모를 타국에서 오로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대가 없는
희생을 치른 유엔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쳤던 이들을 위해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꼭 기억합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이달의 안보칼럼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다

문 성 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올해로 광복 76주년을 맞는다.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일제하에서 해방되어 광복을 얻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분단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야망으로 급격히 공산화되었다. 남로당을 앞세운 대한민국 전복 기도가 실패하자 김일성은 6.25 무력 남침을 감행했으나 패퇴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발전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북한은 김씨 3대 세습왕조체제를 유지하며 핵 ·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다 지금은 세계 최빈국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북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 가운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진정한 광복이 아니다. 광복을 완성하려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통일 완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

첫째,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고한 안보는 통일의 기반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해왔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핵 · 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통해 유사시 이를 사용하여 무력적화 통일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김정은 정권이 노동당 강령 수정으로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남용 전술핵무기 개발도 공언했음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려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위력 강화를 위한 한국군 현대화도 멈출 수 없다. 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 핵을 무용화하고 대남적화의지를 좌절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해를 이뤄야 한다. 그러한 시도는 1970년대 초부터 개시되었고 지난 50여 년 동안 다섯차례의 정상회담과 의미 있는 합의들을 도출했지만, 오늘날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이다. 왜 그런 것인가?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폐쇄체제인 북한이 개방하여 인적교류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북한 정권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1990년 통일을 이룬 서독의 대동독 정책 키워드는 '변화'였다. 서독정부는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우월성과 필요성을 자각시키려고 집중 노력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즉, 우리의 통일 · 대북정책 또한 북한 변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셋째, 통일을 열망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통일이 꿈이 아니라 짐'으로 인식된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목청 높여 불렀던 기억조차 희미하다.

우리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통일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분단이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서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다가온 것처럼 통일 또한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줄 리 만무하다. 2002년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표어가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듯이 통일의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통일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속에 우뚝 선 통일한국 염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경제적인 풍요뿐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 BTS로 대표되는 K-Pop, 그리고 K-영화, K-음식 등등 K자만 붙이면 국제사회가 환호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통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중심의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제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이다.

통일이 최상의 안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을 통해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가자.

향군역사 바로알기 ㉝

시대변화에 맞춰 꾸준히 발전해 온 향군 발전 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체계적으로 추진… 능동적으로 대처

향군은 69년의 긴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는 당시 회장단과 부서장들이 중심이 되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결과이다.

향군 발전계획의 시초는 1965년이다. 이때 본회는 향군의 숙원사업인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1차 5개년 계획(1965~1969)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였다.

추진중점은 ▲조직기능 강화 ▲자립목적 달성 ▲회원복지 증진 ▲사회봉사활동 증대 ▲국제유대강화에 두었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차 5개년계획(1970~1974)을 마련하여 향군의 존재가치를 대외에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후 1980년대는 본회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고 향군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향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2월 향군발전 5개년계획(1987~1991)을 수립하였다.

향군 발전계획, 1965년부터 시작 자립기반 마련 및 존재가치 부각 초점

이때의 핵심과제는 ▲조직 활성화 ▲향군 역량 집중 및 안보태세 강화 ▲국제활동 강화 ▲회원복지 증진 ▲수익증대를 통한 회 운영 활성화 및 재원 확보 ▲회 업무 능률화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맞으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마침 향군도 2000년 5월 제29대 이상훈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향군 운영과 각종제도, 산하업체 경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새 시대 향군상을 정립하고자 취임과 함께 새 시대 향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였다.

이때 3개월간의 숙고 끝에 마련된 개선안을 보면 ▲본부 기구 축소개편, 정예화 ▲사업체 구조조정 및 통폐합. 통제기능 강화 ▲시·군·구회 운영보조비 지원 방안 ▲감사규정 등 각종 회법규 개정 ▲대국민 홍보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즉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새 시대 선진 향군 상'을 정립할 수 있는 '선진향군을 향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새 시대 향군 발전위원회 구성 선진향군 향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그 이후 2009년 9월 제33대 박세환 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향군의 비전을 '젊고 힘있는 향군 건설'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군발전 1·2·3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1은 향군장학금 100억 원 조성, 2는 정회원 200만 확보, 3은 보훈성금 300억 달성이 있다.

이러한 '향군발전 1·2·3 운동'은 적극적인 홍보와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장학금 조성 사업은 회원들과 각계에서 많은 인원들이 동참하여 3년 만에 40여억 원을 모아 향군장학재단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별도 관리하면서 매년 참전용사와 회원 자녀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정회원 200만 확보 운동은 당시 80만에서 2012년 말 기준 132만까지 모집하였으며 보훈성금 300억 달성도 2010년 198억 원에서 2012년 기준 286억 까지 늘리는 알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김진호 회장, 향군 개선발전위 운영 43개 과제 도출 추진, 변화와 혁신 지속

2017년 제36대 김진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향군 개선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대내외 전문가 38명을 위촉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였다. 8개 분과로 나누어 법규 및 제도개선, 조직개편, 향군 정체성 정립, 경영개선, 각급회 자립기반 구축 및 조직 활성화, 조직기강 확립, 신규사업 발굴 등을 심층 검토하여 법규정비 29개 과제, 추가 발전과제 14개 등 총 43개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홍보실〉

국민 61% 북한에 무관심…한미동맹, 94% '필요'

주한미군, 90.3% '필요'…미 북 정상회담, 69% '긍정적'

통일연구원 '2021 통일의식조사'

통일연구원이 최근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결과 우리 국민 61%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1991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세대'는 74.1%가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답했다. 반면 1990년대 말 IMF를 겪은 세대는 68.3%가, 고령층인 전쟁세대는 52.9%가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답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작년 52.7%에서 58.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에 63.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선 세 번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90% 이상이 미래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0.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통일 후'의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47.9%로 크게 줄어들었다.

미 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월26일부터 5월18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3명을 상대로 대면면접으로 진행됐다.

안보전망대

미 하원, '북한 등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발의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95명이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7월22일(현지시간) 발의했다.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사회주의가 기근과 대량살인 등을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은 역사상 최대 범죄 중 상당수는 구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로,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등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에 의해 자행됐다며 북한에는 최대 350만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살라자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난민의 딸로서 사회주의는 굶주림과 참혹함, 억압, 망명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자유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 폭정의 길로 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 이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미 CIA 국장 "북 핵, 미국에 중대한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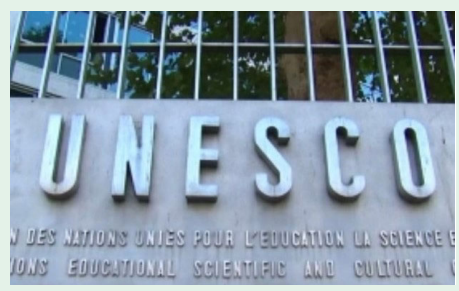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7월22일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CIA가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스 국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의 위협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매우 무서운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지도부의 성격과 확대되고 있는 역량을 감안할 때 그것에 대해 여러분은 매우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의심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 본토는 물론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제기되는 위협에 CIA가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후속조치 이행 촉구



제44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22일 일본의 '군함도 왜곡'에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당사국(일본)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당사국이 5가지(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해 조치, 희생자 추모 조치, 국제 모범사례, 당사자간 대화) 사항을 포함한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하여 관련 결정 이행을 요청하며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를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욱 국방, 찰스 리차드 미 전략사령관 접견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동맹 강화 등 의견 교환

서욱 국방부장관이 7월14일 찰스 리차드(Charles A. Richard) 미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동맹의 억제태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한 미 전략사령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리차드 미 전략사령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 미 전략사령부의 대비태세가 완벽함을 강조했다.

부임 후 첫 해외방문인 리차드 사령관의 이번 방한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지역 미군 부대를 대상으로 한 방문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군대 일원으로 국민의 생명 지킨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예비군지휘관들 방역 지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검사소)가 속속 추가 운용되고 있다. 검사소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검사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으면 즉시 장병들을 투입해 '국민의 군대'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

특히 모든 예비군지휘관들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육군51보병사단 권선2동 김영빈(군무사무관) 예비군지휘관은 상근예비역 2명과 7월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앞 검사소에서 코로나19 방역지원을 펼쳤다. 검사소 운영 전·후 필요한 물품을 옮기고, 검사자 문진표 작성을 돕는 한편 충분한 간격을 두고 순서를 기다리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주를 보냈다.

육군52보병사단 횃불여단 소속 관악구 예비군지휘관 24명도 7월12일부터 일주일씩 돌아가며 신림체육센터 ·낙성대공원 검사소에서 코로나19 방역지원을 펼쳤다.

이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사소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앞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이 간격을 유지하며 기다리도록 안내하고 검사 전에 문진표 작성을 도우며 문의에 답변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했다.

불볕더위와 장마,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역복 착용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건네주는 감사 인사는 '피로 회복제'가 됐다며 이들은 뿌듯해 했다.

국방단신

동부전선 과학화 경계시스템 점검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19일 동부전선 GOP 대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토의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방문은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ADD 등의 주요 부서장과 현장 지휘관 등이 참석해 경계시스템의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려사항과 제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동부전선에는 연말까지 신속시범획득 사업 방식을 통해 취약 지역부터 '음원 활용 AI 경계시스템'과 '레이다 연동 AI 경계시스템' 2종을 도입하고 6개월 동안 'AI 실증랩'을 시범 운영하여 군 운용 적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2022년에는 노후 카메라 교체와 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AI 기능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경미한 성능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반기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성료

국방부가 실시한 '2021년 전반기 제1, 2차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총 47,118명의 장병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기업은 총 323개 업체다.

장병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온택트 방식으로 실시된 올해 전반기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9일까지, 6월14일부터 18일까지 2차례 개최됐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난해 참여 장병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스톱 채용 프로세스를 새로 구현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현직자 멘토링, 화상 컨설팅(진로·자기소개서·면접), 인사담당자 실전 모의면접 등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프로그램을 확충했다.

올해도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훈련 대상자 전원을 훈련이수 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소집훈련 대상인 약 180여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온라인)교육과,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의 주요 직위자(3천여명)를 대상으로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소집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문('공인중개사 특별 할인과정')

현역 및 전역장병을 위한 '공인중개사 특별 할인과정' 수강생 모집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온라인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현역 및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역 및 전역장병들에게 특별혜택이 주어지는 과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수강생 모집 개요

가. 지원 과정 : 공인중개사 온라인 동영상 수강과정
※2021 올패스 퀵 1차/2차/1,2차(총 3가지 상품)
나. 모집 인원 : 000명
다. 수강생 조건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을 하는 인원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사업 운영 및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

2. 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회원대상 할인혜택

구 분	박문각 판매가	재향군인회 제공가	할인율
2021 올패스 퀵1/2차	490,000원	343,000원	30%
2021 올패스 퀵 2차	440,000원	308,000원	30%
2021 올패스 퀵 1차	400,000원	280,000원	30%

※단, 교재는 별도 구매(박문각 온라인 서점 및 유명서점 구매 가능)

3. 신청 및 학습방법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사이트를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시 혜택 부여
-평생교육원 사이트(edu.korvabiz.com)
나. 박문각 공인중개사 온라인 동영상 안내 사이트로 이동(강의 소개 및 학습방법 공지)
다. 박문각 공인중개사 온라인 동영상 2021 올패스 퀵 1차/2차/1,2차 상품중 선택후 결재
라. 결재 사이트에서 학습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모든 강의는 박문각 전문강사가 진행)

4. 기타사항

가. 2022년 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상대평가로 개편되어 자격증 취득이 어렵게 됩니다.
나. 공인중개사 1차 시험(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 시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모바일과 PC로 함께 수강이 가능합니다.
라. 동일한 ID로 2명이상 수강시 아이디 공유금지 정책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교육운영팀장 : ☎ 02-416-96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평생교육원

국민 80%, "보훈의식이 높으면 국가 자긍심이 커진다"

국가보훈처, 대국민 '보훈' 인식조사 결과 발표…창설 60주년 맞아 실시

국가보훈처는 보훈처 창설 6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 속 보훈 문화조성과 미래 보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일반 국민의 '보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2,000명이며 지난 5월25일부터 5월30일까지 설문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19%p, ㈜케이스탯 컨설팅 의뢰)했다.

조사결과 보훈에 대해 응답자의 83.5%가 필요한 것이라 답했고 76.7%는 긍정적이라 답했다.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보훈의 정의를 제시했을 때 응답자의 80.5%가 공감하며, 75.7%는 실천 방법이 다양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스로 보훈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0%만 긍정적(매우 그렇다 8.2%, 그렇다 21.8%)으로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87% 이상이 독립운동과 6·25참전 등을 국가수호 활동이라 답했고 75.8%가 민주화운동을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헌신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보훈대상일 경우 희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기념하는 문화조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했지만 응답자의 66%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고 했고 48.3%는 기억·감사하는 문화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응답자 다수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려는 '보훈의식'이 높으면 애국심(79.6%)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79.3%)이 커지고 사회참여 의식(74.6%) 및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72.9%)이 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훈·유공자 단체(75.0%)와 학교·교육기관(71.1%)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사회 전반의 보훈의식이 '낮다'는 의견이 32.2%에 달했지만 대체로 사회 전반(45.9%)과 본인 (49.0%)의 보훈의식은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가 '보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0년간의 보훈을 성찰하고 미래 보훈을 구상하여 '든든한 보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6·25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 미래세대로 계승

국가보훈처,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개최

'유엔군 참전의 날' 온라인 홍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급속한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7월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대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날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고, 2013년부터 국가보훈처가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7월19일부터 30일까지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를 개최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이번 캠프에는 해외 거주 및 국내 체류 참전용사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4개국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7월8일에 진행한 온라인 안내교육을 시작으로 19일부터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평화 여행기, 해단식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은 7월19일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이야기(토크) 콘서트는 7월21일 한국사 전문 강사인 최태성 강사의 진행으로 열려 '유엔 참전용사 후손이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평화 여행기는 당초 팀별로 선택한 의미 있는 역사장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탐방으로 변경되어 진행됐다.

6·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2009년에 시작한 평화캠프는 올해 12번째를 맞이했으며 국가보훈처는 "이번 평화캠프를 통해 유엔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

마산의료원 포함, 권역별 11개 의료기관 선정

국가보훈처는 7월16일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의료원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부산보훈병원장, 경남지역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보훈처가 1986년부터 도입하여 35년간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은 관리단과 보훈관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진료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국가유공자 예우 등 9개 평가 기준에 따라 권역별로 11개의 우수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늘 2023년까지이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까지 보훈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내 산림, '보훈의 숲'으로

국가보훈처-산림청, 업무협약

국가보훈처와 산림청은 7월2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호국의 성지인 국립묘지 내 산림을 '보훈의 숲'으로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묘지 내 국유림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관리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마지막 예우의 공간이자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장소인 국립묘지의 숭고함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양 기관은 향후 전국에 있는 10개 국립묘지의 산림을 '보훈의 숲'으로 만들기 위해 산림경영 대행, 도시 숲 조성 활성화, 병충해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 보훈가족과 지역민을 위한 산림치유 사업 등 국가보훈 정책과 산림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⑦

코로나19 상황 아래 비대면 안보교육, 향군TV

군 사기진작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 활용 새 콘텐츠 개발

고 종 훈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회장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의 위력이 꺾일 줄 모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포괄적 안보 측면에서 인류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었다.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전통적 경제 · 군사 강대국들도 이러한 인명피해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군사훈련의 축소 · 연기는 군의 전투준비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면 향군의 안보활동에도 제한을 주고 있다.

이러한 펜데믹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우리 향군의 안보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향군의 3대 안보활동 중점을 구현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적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는 것이다.

옛날에는 뭔가 궁금하면 관련 전문가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네이버 선생이나 구글을 검색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바일 사용자들은 네이버 선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검색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태어나 말을 배우기도 전에 유튜브를 먼저 보고 클릭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매개체가 유튜브인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본회 호국안보국에서는 대국민 안보활동이 제한되어있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최근 유튜브 향군 TV안보정론을 통해 대국민 안보교육을 비대면 하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물론 처음 시작하다 보니 여느 콘텐츠 보다 서툰 부분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보보훈단체로서는 처음 시도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유튜브 방송이 성공하려면 구독자 확보가 관건인데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우리 충북향군은 먼저 향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가입, 구독을 하도록 하여 1차적으로 기반을 넓히고 나아가 신규 향군정회원 가입시 향군 TV 가입 및 구독을 하도록 하여 조직 활성화와 더불어 대국민 안보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육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어지는 사건 사고로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군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랫동안 이어지는 군의 사기저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남북 대치라는 안보상황은 그대로인데 전투력의 핵심이라 할 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자체 평가는 간과할 수 없는 안보상의 위험신호다.

따라서 군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요즘 MZ세대들의 특성과 의식성향을 잘 감안하여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안보의 중요성도 인식 시키면서 사기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다. 이러한 군내 병영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우리 향군이 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우리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향군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해 왔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매우 고마워하며 감사의 뜻을 보내오기도 했다. 특히 미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활동과 성금 전달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추모의 벽을 건립 하도록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 외에도 미 참전용사에 마스크와 상금 전달도 참전용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우리 향군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활동을 유튜브를 통해 전 전 세계로 홍보한다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우리 향군TV가 우리 충북향군 임직원들의 구독자 확보 첫 목표 달성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 최대 구독자를 확보한 안보전문 유튜브로 발전할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광주 전남 향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간담회

보훈특별 주간 맞아 향군 방문, 보훈정책 의견 청취

광주 전남 향군(회장 나종수)은 6월30일 보훈특별 주간을 맞아 안보회관을 방문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안보 및 보훈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종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5개구 회장 및 여성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나 회장은 시민 안보의식을 높이고 재향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나라사랑 함양 교육과 안보현장 순례 ▲명예선양 사업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며 든든한 지역 향토방위 지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향후 보훈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6 · 25최초 학도병 전투,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

하동군 향군, 추모제 주관에 이어 추모공원 조성 큰 역할

6.25전쟁 당시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북한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학도병들을 기리는 제71주기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가 7월25일 경남 하동군 향군(회장 박연하) 주관으로 화개면 궁도장에서 거행됐다.

박연하 회장은 추념사에서 "6.25전쟁의 교훈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전하여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제가 열린 화개면 일원은 6.25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참전했던 격전지로 하동군 향군이 매년 추모제를 주관하며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으며 나아가 지난 5월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화개전투는 1950년 7월25일, 여수 · 순천 · 광양 · 보성 · 벌교 · 강진지역 학교에서 지원한 15세에서 18세의 학생들 183명이 전차와 대공화기로 중무장한 북한군 6사단과 벌인 치열한 전투로 최초의 학도병 전투로 기록되어 있다.

미 동부 향군, 한국전쟁 71주년 헌화…"그들이 없었으면 한국은 없었다"

참전용사 희생 기억하고 고마움 잊지 말아야
7.27정전협정 체결 68주년 기념행사도 개최

미 동부 향군(회장 김인철)은 6월25일 워싱턴 DC 내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6.25전쟁 제71주년 기념 헌화식에 참석했다. 김인철 회장은 이날 "6.25 전쟁 발발 당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다"면서 "많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혁 대사도 "한미동맹은 계속되고 71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화식에는 이수혁 대사, 표세우 국방무관,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재단 이사장, 김인철 미 동부 향군회장, 손경준 워싱턴 6.25 참전유공자회장,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유미 호건 여사 등을 비롯해 6.25 참전 유공자, 재향군인회 회원, 미국 참전용사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미 동부 향군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7월27일에도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군인들의 희생을 애도했다.

제2연평해전 영웅 고 윤영하 소령 추모

인천시 향군(회장 김형년)은 6월29일 송도고등학교 윤영하 소령 흉상 앞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윤영하 소령 19주기 추모행사에 참석, 고인의 나라사랑사랑 정신을 기렸다.

진주시 향군, 조규일 시장과 간담회

안보단체 지원예산 삭감 제고 요청

경남 진주시 향군(회장 최신용)은 7월20일 진주시청을 찾아 조규일 진주시장을 예방하고 진주시의 방역활동 및 향군 활동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신용 회장은 "안보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 안보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활동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키기 캠페인, 지역통합방위 등에 대한 진주시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시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안보단체 지원예산 삭감과 관련, "해당 부서를 통해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나라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향군 정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자격 :** 군번있는 자 누구나
- **평생회비**

병 사	부사관 · 위관	영 관	장 군
1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 **정회원 특전 :** 향군편의시설, 향군가맹점 할인 혜택
- **문의 :** 02)417-5412, 모바일 가입 가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업체 | ㈜중앙고속, 향우산업㈜, 향우종합관리㈜, 향우실업㈜,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종합사업본부, 향군타워사업본부,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6월21일~7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6월24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안보와 국력, 평화의 가치 강조.

서대문구회 : 7월2일 푸른 꿈동산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5대 상징물을 주제로 안보 교육 실시.

마포구회 : 여성회는 7월6일 홍제천 주변에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정화활동 실시.

용산구회 : 7월7일 용산 보훈회관 강당에서 관내 보훈단체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장 간담회 가져.

송파구회 : 7월5일 석촌역, 석촌호수 일대에서 자연보호 거리 캠페인 및 봉사활동 실시.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7월13일 부산보훈병원을 방문, 입원환자들을 위로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

대구시 향군

동구회 : 해안동회는 6월27일 해안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에게 라면 30박스 기탁.

북구회 : 6월30일 시회 박용운 육군부회장을 초빙, 도남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 6 · 25'를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인천시 향군

연수구회 : 6월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연수구 9개 보훈단체장과 직원 및 향군 임직원들을 초청, 간담회 및 위로연 개최.

경기도 향군

연천군회 : 6월25일 전곡리구석기 유적지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제5회 세계밀리터리룩 페스티벌에 참석.

광주시회 : 6월말 광주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덴탈마스크 6천매 기부.

안양시회 : 6월24일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건강복지 증진 앞장. 7월9일 최대호 안양시장 주관 안양시 6개 단체장 간담회 참석, 코로나19 극복 위한 의견 교환.

여주시회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15일 동안 천연마스크 100개를 제작하여 노인복지관에 전달.

수원시회 : 6월3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호국보훈 단체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하며 감사와 위로 전달.

강원도 향군

삼척시회 : 7월9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작은 후진 해변, 삼척 해변, 증산 해변 등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해변항공 방역, 환경정화 활동 실시.

강릉시회 : 6월23일 강릉의료원에서 강릉의료원과 향군회원 건강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회원복지 증진 도모.

양구군회 : 6월22일 대우산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업 중인 국군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7월13일 양구읍 두드림센터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을 주제로 안보교육실시.

횡성군회 : 7월2일 횡성군청을 방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

인제군회 : 6월23일부터 27일까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일안보 포스터 600여점을 인제문화원 1층 전시실에 전시.

고성군회 : 6월21일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6.25 참전용사 및 전몰군경 미망인가구에 오이김치 전달.

원주시회 : 문막읍회는 6월24일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통해 6.25 참전용사 40가구에 밑반찬 전달.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6월21일 대전 보훈병원과 청주 효성병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원중인 참전국가 유공자 위문.

보은군회 : 6월25일 정상혁 보은군수 및 회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희생정신 기려. 7월9일 정상혁 군수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향군 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

제천시회 : 6월25일 제71주년 6.25를 맞아 관내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얼 기려.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서구회 : 7월6일 향군회관에서 진기환 안보교수를 초청, '기억의 불꽃, 평화의 햇불'을 주제로 안보강연회 가져.

당진시회 : 석문면회는 6월25일 석문면사무소에서 지역 6 · 25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

서천군회 : 6월26일 문예의 전당에서 청년단 발대식을 갖고 홍승균 단장을 중심으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

보령시회 : 청년단은 7월16일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참여, 정화조 및 상하수도 설치 등 소외된 이웃

도와. 6월25일 청년단과 함께 현충탑 참배 후 환경정화 활동 실시하고 호국영령 얼 기려.

아산시회 : 7월 5일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장들을 초청, '재향군인회 및 보훈단체 간 유대강화와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증진을 위한 간담회 주관.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6월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호국보훈행사를 개최하고 감사선물 전달. 여성회는 7월7일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 실시.

김제시회 : 7월6일 시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주관하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 전통시장 주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고창군회 : 6월29일 양로원 야고바의 집을 찾아 보리국수 후원.

장수군회 : 6월24일 영덕군회와 대전현충원에서 국민화합 행사를 겸한 참배행사를 갖고 호국영령 얼 기리고 화합 도모. 여성회는 7월19일 지역명소 하누리당 잔디밭 일대에서 버려진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 실시.

군산시회 : 6월25일 제71주년 6.25를 맞이하여 참전용사 두 분을 초청, 위로 격려. 7월10일 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안보에 대해 의견 교환. 7월14일 군산중학교 충경원에서 거행된 제71주기 군산 중 고등학교 6.25학도병 전사자 추모제 참석.

완주군회 : 여성회는 7월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정책 홍보 및 완주군 주소 갖기 홍보 캠페인.

무주군회 : 여성회는 7월13일 노인회관을 찾아 음료를 전달하며 혹서기에 힘든 어르신들을 위로.

정읍시회 : 6월21일 황토원 녹차 재취 봉사활동 실시. 6월22일 정읍장례문화원과 장례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향군회원 가족 장례지원.

광주 전남 향군

전남도회 : 6월29일 안보회관 5층 대강당에서 27개 시·군·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활동 성과분석회의 개최.

목포시회 : 6월28일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목포사랑운동 질서분야 캠페인 실시. 같은 날 목포 현충공원 정화활동 전개.

순천시회 : 6월23일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6.25참전용사기념탑공원 정화작업 실시.

해남군회 : 7월1일 현충공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 및 정화활동 전개.

영광군회 : 7월8일 보훈회관을 방문, 서부보훈지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경상북도 향군

문경시회 : 7월2일 용배공원에서 문경 출신 호국영웅 고 김용배 장군 70주기 추모제를 엄수하고 장군의 충정과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여성회는 7월14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겸한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

영주시회 : 여성회는 6월25일 자매부대인 육군 제3260부대 3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7월13일 평은면 6.25전쟁 참전용사 선양비 주변 정화활동 실시. 부석면회는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 기탁.

영천시회 : 6월26일 5만여 6.25참전 학도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화북면 정각리 정각삼거리에 설치된 자유의 학도병상 제막식 참석.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회장단은 6월30일 창녕군회와 함께 창녕군 장마면 유해발굴 현장을 찾아 6·25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땀흘리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

창원 의창 성산구회 : 여성회는 6월22일 장애인급식소에서 반찬 만들기 및 배달봉사활동 전개. 7월20일 ㈜뉴성운관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증진.

김해시회 : 6월23일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회원, 가족 건강증진 위해 상호협력.

통영시회 : 7월14일 폭우 피해를 입은 6·25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분들에게 방역물품 전달. 여성회는 7월4일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통영 한산대첩 전국서예대전 봉사활동 실시.

하동군회 : 6월2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거노인 및 참전용사 가정을 대상으로 반찬나눔 봉사 실시.

고성군회 : 7월1일 권오철 사무국장이 향군 입사 기념으로 노인복지시설 '사랑의 집'에 100만원 전달. 7월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회화면 일대 5가구를 방문, 복구활동 펼쳐. 6월23일 8358부대 부사관단과 함께 제71주년 6.25를 맞이하여 호국용사 가정 방문, 위로.

거제시회 : 6월29일 향군회관에서 경남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회관노후에 따른 보수예산 확보 논의. 여성회는 7월1일 관내 중증장애인시설 반야원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합천군회 : 6월23일까지 4일간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남해군회 : 6월23일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가정돌보미 자원봉사활동 실시.

창녕군회 : 7월14일 창녕군청에서 열린 안보보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밀양시회 : 여성회는 매주 금요일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반찬도시락 배달봉사 실시.

울산 중구회 : 7월7일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에서 급식 봉사활동 전개. 7월16일 동천강 일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 펼쳐.

울산 동구회 : 7월16일 피서철을 앞두고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전개.

울산 남구회 : 7월16일 삼호대숲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 전개.

울산 울주군 : 7월16일 청량천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 전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6월28일 신제주초등학교를 방문, 교직원 및 학생들과 환담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200개 전달. 6월30일 해병대 제9여단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제주시회 : 6월2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6.25 전쟁 71주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 기려.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미동맹재단 · 주한미군전우회, 백선엽 장군 서거 1주기 추모식

백선엽 장군 서거 1주기(7월10일)를 추모하는 행사가 7월9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구국용사충혼비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관으로 거행됐다.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폴 러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6 · 25전쟁 당시 백 장군이 이끌던 1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게 한 상징적 장소인 다부동에서 거행되어 그 의의를 더했다.

한편 백선엽 장군 1주기 추모 행사를 앞두고 빈센트 브룩스, 존 틸럴리, 토머스 슈워츠, 버웰 벨, 제임스 서먼, 윌터 샤프, 커티스 스캐퍼로티 예비역 대장 등 전직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7명이 영상 등으로 추모 메시지를 보내왔다.

성우회,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박사 초청 좌담회

성우회(회장 이종옥) 회장단은 7월8일 북한의 전문 외교관 임무를 수행하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여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환 박사를 초청, '지금 북한에서는?' 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북한의 사회적 실상과 북한군 현 실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좌담회에서 고영환 박사는 "북한이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현재 식량사정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 북한 주재 주요 외국 대사관이 필수 인력만 남기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은이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부실한 조치로 군 서열 1, 2위인 리병철 상무위원과 박정천 총참모장 등이 문책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어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존재가 그들의 오판과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종옥 회장은 "오늘 좌담회를 통해 북한의 도발 및 급변사태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전망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는 등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향군 신탄진휴게소, 대전 동구와 업무협약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협력

향군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본부장 최준식) 신탄진휴게소는 6월26일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휴게소내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관에 상설 판매장터를 마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 방안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황인호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상설 판매장터마련을 통해 다양한 협력으로 구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홍보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탄진휴게소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관은 그동안 공실이었던 공간을 한국도로공사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해 제공했다.

광고마케팅사업단, 네오시스템즈와 업무제휴

향군 광고마케팅사업단과 물류 IT기업 네오시스템즈는 7월19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향군 회원의 복지 증진과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제휴로 네오시스템즈는 향군 임직원과 회원을 위한 폐쇄형 공동구매 사이트를 구축하고 상품 기획 · 소싱 · 주문 · 물류 ·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군 광고마케팅사업단은 회원관리 및 공동구매 진행에 대한 포괄적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향군은 네오시스템즈의 전문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임직원과 회원 니즈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네오시스템즈는 스타트업 · 중소기업 · 소호몰 등이 주를 이루는 제휴업체 상품을 재향군인회 1000만 회원과 임직원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향군 할인가맹점

▲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 업소현황**
전국 1,157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할인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시 해당 지역 시 · 도 / 시 · 군 · 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신규 가맹점 현황

병 · 의원/의료기기

-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49) 055-329-3340 : 비급여의 20%
- **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1877-9191 : 급여 · 비급여10%, 종합검진 20%, 장례식장 10%
- **김포우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1) 031-999-1000 : 10~20%
- **아산재건정형외과**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18, 가보프라자 3 · 4 · 7층) 031-847-2046 : 비급여의 10%, 재증명서 발급의 50%
- **바로병원**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58(주안동) 032-722-8585 : 20%
- **정읍사랑병원** (전북 정읍시 상동중앙로 94) 063-530-3100
- **킹스치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05, 휴먼타워3층) 02-541-6881~2 : 해당 항목 또는 부위에 따라 28~50%

식당/음료

- **본가야숯불**(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96) 055-324-3388 : 10%

기타

- **휴대폰테크노파크** (경남 김해시 삼계 중앙로 50) 010-5555-0213 : 10%
- **하남종합서비스 기아오토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5-6) 031-795-418
- **명성가구마을**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59) 031-793-2224 : 정가의 10%
- **타이어프로안양점(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91) : 10%
- **㈜오렌지넨트카** (제주시 서해안로442-53(용담동) 064-713-0034 : 20%
- **애플플라워** (제주시 귀아랑1길 11(연동) 064-757-8582 : 10%
- **현대차량관리1급공업사** (제주시 화남로 19(화북일동) 064-725-2336
- **오늘종합인쇄** (제주시 동광로6길6(이도이동) 064-758-2348 : 10%
- **정읍장례문화원** (전북 정읍시 벚꽃로 131) 063-535-7777 : 10%(리무진, 버스, 대실료 무료)
- **제주중문리조트**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로 117) 064-738-0085 : 20%
- **황가네수산** (제주도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8, 1층) 064-762-3783 : 10%

▲우수 가맹점 현황

병 · 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 **거봉 백병원** (경남 거제시 계룡로 5길 14) 055-733-0000, 비급여부분 1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 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 객실 30%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디럭스 객실, 조식)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20%
- **엠플러스웨딩**(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 축하 3단 화환 59,000원

특별기획 / 호국산성 기행 ⑦ 고양 행주산성

한강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 권율장군 행주대첩 이룬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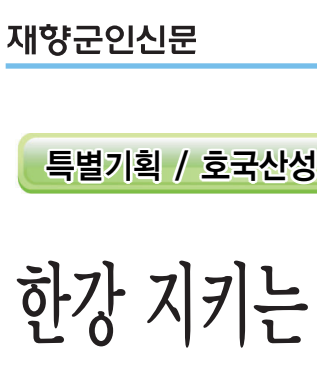
한미 해병대, 서울 수복위해 도강 … 산성입구에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

행주산성은 사적 제56호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덕양산의 7, 8부 능선에 쌓은 테뫼식 성으로 흙을 이용한 토축 산성이다.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형식이다.

산꼭대기를 둘러싼 작은 규모의 내성과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2중 구조를 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동남쪽으로는 창릉천이 산성을 에워싸고 돌아 자연적으로 성을 방어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의 땅이었으며 서해안과 연결된 수로의 거점지역으로 남북 교통의 요충지대였다.

현재 성벽은 산 정상부의 동남쪽 사면과 외성부의 동북쪽 성벽뿐이며, 북서쪽 방면은 내성은 확인되나 외성 성벽은 확인할 수 없다.

성 안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조각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많이 나오고 물고기뼈무늬를 새긴 기와조각도 발견되고 있어서 고려시대까지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주산성은 1593년(선조 26) 권율 장군이 대승을 이룬 전적지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이룬 곳입니다.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

행주산성은 사적 제56호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덕양산의 7, 8부 능선에 쌓은 테뫼식 성으로 흙을 이용한 토축 산성이다.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형식이다.

산꼭대기를 둘러싼 작은 규모의 내성과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2중 구조를 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동남쪽으로는 창릉천이 산성을 에워싸고 돌아 자연적으로 성을 방어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의 땅이었으며 서해안과 연결된 수로의 거점지역으로 남북 교통의 요충지대였다.

현재 성벽은 산 정상부의 동남쪽 사면과 외성부의 동북쪽 성벽뿐이며, 북서쪽 방면은 내성은 확인되나 외성 성벽은 확인할 수 없다.

성 안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조각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많이 나오고 물고기뼈무늬를 새긴 기와조각도 발견되고 있어서 고려시대까지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주산성은 1593년(선조 26) 권율 장군이 대승을 이룬 전적지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이룬 곳입니다.

행주대첩비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선조 26년(1593)에 왜병과의 전투에서 성 안의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 병사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부녀자들의 공을 기리는 뜻에서 행주라는 지명을 따서 '행주치마'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현재 성안에는 복원된 415m의 토성의 성곽과 1603년에 세운 행주대첩비가 있으며 1970년에 대대적인 정화작업으로 권율장군의 사당인 충장사 등을 건립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행주산성의 요새적 지리요인은 한국전쟁 때 다시 한 번 입증된다. 한미연합군 해병대가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수도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으로 도강한 것이다.

한반도 내의 전쟁에서는 언제나 행주산성은 한강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행주산성 입구에 세워진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는 그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행주산성은 하루 평균 200~300명이 방문하며 휴일 최고 2,600여 명까지 방문하는 고양시 명소가 되었다. 도심에서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잘 정비된 경내는 일상을 탈피하여 여가를 즐기며 민족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행주대첩이 있었던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3월14일 개최하는 행주대첩제를 비롯하여 행주문화제, 행주산성 해맞이축제 등의 행사에서 궁도대회, 민속놀이 등도 이루어져 고양시민은 물론 각지에서 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정보

여름에 가장 많은 '연조직염', 외인성 세균 의해 발생

'연조직염' 이란 피부와 피하조직에 발생하는 세균 감염증이다. 과거에는 벌집모양의 염증이라 해서 봉와직염, 또는 봉소직염으로 불렸으나 의학용어의 우리말 개정작업을 통해 연조직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

연조직염은 피부와 부속기관에 상재하는 사슬알 균, 황색 포도알 균과 같은 세균무리에 의해서 혹은 다양한 종류의 외인성 세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세균은 피부의 손상된 부분을 통해 침투한다. 세균은 주로 찰과상, 절개된 상처, 화상부위, 곤충에 물린 자리, 수술 절개부 및 정맥 내 도관 등을 통해 표피로 침투하여 연조직염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정맥이나 림프관 폐색 등으로 인해 부종이 있는 경우에도 잘 발생한다.

주요증상

연조직염의 주요 증상은 열감과 통증, 국소적인 압통이 있는 적색의 홍반성 부종 병변으로 나타나서 빠르게 진행되며 맑은 액체가 들어있는 물집이나 고름이 염증부위에 동반되기도 한다.

팔다리에 생기는 경우 림프관염과 림프절염이 동반되기도 하며 발열이나 오한, 권태감 같은 전신증상이 동반되고 균혈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방법

여름철 발생한 피부상처는 완전히 건조한 뒤 연고를 도포하고 이후 소독밴드를 붙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모기 물린 자리에 침을 바르거나 긁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치료는 약물치료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주로 사용한다. 냉찜질과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진행정도에 따라 초기에는 경구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전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입원하여 정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향군장학기금 기부

(21년 6월 22일 ~ 21년 7월 21일)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만원 (282만원)
- 前 경주시지회 감사 배금원 20만원 (90만원)
- 권율부대 강모아 1만원 (72만원)
- 권율부대 김홍수 1만원 (11만원)
- 향군장학재단 정세관 1만원 (5만원)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kvas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우여! 어디에 …

◆박상희씨가 1989년 3군사령부 1101야전공병단 본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관병과 중사 조영현 선배를 찾고 있습니다.
(박상희 010-9411-5387)

◆1994 ~1997 1군단 101통신단 5중대 본부에서 근무했던 김영수 씨가 같이 복무했던 전우들을 찾습니다.
(김영수 2883574@naver.com)

◆차경호씨가 1978년부터 육군통신사령부 A단말에 같이 근무하던 경북 김천 출신 박상하 하사를 찾습니다.
(차경호 frontec-cha@hanmail.net)

◆김정연씨가 2019년 8, 9월 사이에 고양시 국군병원에 입원했던 박윤수 중위를 찾습니다.
박 중위는경남 창원출신으로 군사학과를 나왔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연 010-7370-2476)

◆이상익씨가 1980년 당시 육군 방공포병사령부 제2여단 122대대 2포대(당진포대 / 포대장 소령 민방식)에서 동고동락했던 옛 전우들을 찾습니다.
(이상익 010-3466-5900)

탐방 / 참전기념 시설물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

남아공, 유엔과 항공작전 수행 12,400회 출격

한-중 국경선 공중초계… '날으는 치타'로 명명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와는 연고가 없는 줄로만 알았던 나라가 6.25전쟁 당시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신기해서 그들을 기리는 참전비가 있는지 조사하다가 평택시 용이동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를 알게 되었다.

남아공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가 대한 군사원조 결의안을 가결하자 8월4일 전원 자원병으로만 구성된 제2전투비행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대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베테랑들이 대거 포함됐다.

제2전투비행대대는 총 206명으로 편성되어 9월26일에 더반(Durban) 항을 출발해 11월5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이후 11월16일 6.25전쟁 참전 이후 최초로 출격해 청천강 북쪽 북한군 병력 집결지 및 야전 보급소를 폭격하였다. 이들은 북에서 한강이남 전선으로 이어지는 교량을 비롯해 중공군 부대 집결지 및 보급소 등 172개의 목표를 폭격하였다. 게다가 1951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 제5공군의 10개 F-51 편대와 함께 지평리-원주 일대에 기총소사와 폭격을 가해 중공군 공세를 격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활약과 이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과 UN군〉을 기반으로 하여 소개하려 한다.

남아공 공군은 미 제18전투 비행전대에 배속되어 북한 지역에 대한 폭격 임무를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한-중 국경선의 공중초계와 후방 차단작전을 수행했다.

이후 평양까지 점령한 중공군을 막기 위해 연일 개성과 평양 상공으로 출격하여 부대 집결지와 수송차량을 공격했다.

'날으는 치타'로 불린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는 진해비행장을 기지로 하여 약 2년 동안 유엔 공군과 함께 항공작전을 수행하면서 1만 2,405회 출격해 북한군 280여문의 방공진지와 야포, 633여대의 전차와 차량, 후방 보급품 보급소와 발전소 등을 파괴 · 파손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남아공은 1953년 12월29일까지 총 826명의 병력과 F-51 무스탕기 95대 및 F-86 세이버 20대를 파견하여 유엔 공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임무수행 과정에서 36명이 전사하고 8명이 포로로 잡혔다.또 무스탕 74대와 세이버 4대의 손실도 겪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는 1975년 9월29일 세워졌다. 참전비를 비행기 모양으로 설계한 이유는 남아공이 6.25전쟁 때 참전국 중 유일하게 공군부대를 파견했기 때문이다.

참전비 앞에 세워진 영양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호동물로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참전비 전면에는 전사자 명단이, 뒷면에는 건립개요와 비행기가 적의 탱크를 격파하는 모습 등이 새겨져 있다.

참전비의 건립 개요를 보면 "1950년 6월25일 북한 공산 괴뢰집단의 불법 남침 시 한국의 안녕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에서 파병된 공군들이 1950년 10월16일부터 1953년 10월29일까지 세운 혁혁한 공적을 기리고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이 비를 세움"이라고 쓰여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분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있다.

평택시는 해마다 평택시청과 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 재향군인회와 협력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6.25참전 기념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매년 제2전투비행대대의 첫 출격일인 11월16일에 개최되며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남부보훈지청장, 평택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25전쟁을 그저 동양의 어느 작은 나라의 지나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 타국에 소중한 병력과 전투기를 지원해 주었다. 이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리와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녹여 담아낸 것이 바로 남아프리카방공화국 참전 기념비다.

우리는 남아공 공군의 고결한 희생의 결과물 위에서 목숨을 붙이고 살고 있기에 그들의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잊혀 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그들의 사투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홍서희
향군 대학생 인턴기자